

땅에 투사된 자기의 상징 - 명당의 분석심리학적 측면* -

강 철 중**

국문 초록

풍수는 음양오행설에 기초를 둔 주거지와 밋자리의 환경에 대한 체계이다. 풍수에서는 땅 속에 존재하는 생기의 흐름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그 흐름을 중요시 하여 가능하면 그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는 땅에 집터나 묘지를 만들고자 한다. 산 사람은 땅 위에 얹혀 살며 그 기운(생기)을 얻는 반면, 죽은 자는 땅 속에서 그 기운을 직접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 사람 보다는 죽은 사람이 얻는 생기가 더 크고 확실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얻는 생기는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여겼는데 이를 동기감응, 혹은 친자감응이라고 한다. 땅속의 기운이 좋은 곳을 찾아 살거나 혹은 그러한 곳에 조상의 뼈를 묻음으로써 후손들이 그 기운을 이어받아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다.

풍수에서 땅속의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의 땅을 명당이라고 한다. 명당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과거로부터 많은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풍수의 이론이다. 최고의 자리라고 알려진 명당의 형국을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사위와 원등으로 표현되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성의 상징인 자기(Self)의 상징을 발견할 수 있다.

명당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서양의 연금술사들이 최고의 물질인 금을 얻기 위해 행해온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당은 우리 마음속의 최고의 가치인 조화와 균형, 완전성 그리고 전일성인 자기의 상이 땅에 투사된 것이다.

접수일 : 2011년 4월 25일 / 심사완료 : 2011년 5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3일

*본 연구는 2008년도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와 2007학년도 부산대학교 신입교수연구 정착금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정신의 전체성을 추구하는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심 단어 : 풍수 · 명당 · 자기.

풍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의의

먼 과거로부터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지구상에 살아왔다. 현대인과 같은 인간 의식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로서 자연에 완전히 순응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의식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변 환경을 조절하려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해 관심을 가짐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안락함을 추구하기에, 더운 날씨에는 서늘하고 추울 때에는 따뜻한 곳을 찾기 마련이다. 물과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혹한 기후를 피하고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인간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그들이 사는 주변 자연의 환경도 모두 다르다. 개개인의 성격의 특성이 있듯이 주변 자연의 성질도 제각각이다. 여기에 자신이 사는 위치에 따른 날씨와 계절의 변화가 더해져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자연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은 그러한 변화에 자신을 적응 시키거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편안한 삶을 추구해 왔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손들에게 전달 되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시험되고 검증되어 인간의 마음과 뇌에, 그리고 유전자에 각인되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려 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의 안락하고 평온한 죽음을 기원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 혹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후에 그들의, 혹은 남겨진 사람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환경을 조절하려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한 현상은 많은 종교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죽은 후에도 삶이 이어지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영향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대단히 다

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인 것으로 나누어 진다. 살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바라고 부정적인 영향은 배척하려 한다.

풍수는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화현상으로, 살기에 좋은 땅인 길지(吉地), 소위 '명당(明堂)'을 찾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서양 문화에서도 유사한 사상이 있지만 그것은 주로 이상향 즉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 것이기 때문에 그의 묘사가 주로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등 초자연적인 내용을 본질로 한 유토피아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반면 동양적인 이상의 땅, 풍수에서의 명당 혹은 길지는 설이 구구하고 표현이 난해, 산만하기는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경관을 묘사하고 있음이 서양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¹⁾

최창조는 그의 책에서 명당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첫째, 내용(來龍)의 맥세(脈勢)는 북룡(北龍)의 시로(始祖)인 곤륜산(崑崙山)으로부터 수려, 장엄하고 광채나고 둥글며 맑은 생기(生氣)에 찬 산으로 연면히 이어져 길지 뒤쪽의 주산에까지 뻗어내려야 한다. 둘째, 국면(局面)을 구성하고 있는, 혈(穴)을 중심으로 하는 길지 주변의 산세는 사신사(四神砂)의 원칙, 즉 현무수두(玄武垂頭), 주락상무(朱雀翔舞), 청룡완면(靑龍碗蜒), 백호순부(白虎馴頻)의 형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물은 반드시 길한 방위로부터 흘러나와 흉한 방위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혈(穴)자리는 음양의 조화가 집중적으로 표출된 곳이기 때문에 음래(陰來)이면 양수(陽受)하고 양래(陽來)이면 음수(陰受)하는 생기(生氣) 취주(聚注)한 곳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다섯째, 좌향(坐向)은 산수(山水)로 대표되는 국면(局面)전반이 일정한 형국으로 좌정(坐定)되었을 때 전개후폐(前開後閉)해야 한다. 끝으로 전체적 형세는 조화와 균형의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²⁾

풍수는 주거지역과 죽은 사람의 무덤 환경에 대한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비과학적인 독특한 사고체계이다. 인간 경험의 축적에 의해 검증되어 보편성을 얻었지만 명확히 설명될 수 없는 여러 측면들 때문에 비과학적이며, 또한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매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풍수는 미신이나 민간신앙 등으로 과소평가

1) 최창조(1984) :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서울, p335.

2) 최창조(1984) : 같은 책, pp336-337.

된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는 인과적이며 과학적인 의식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무의식이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까지 풍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대부분 지리학적, 생태학적, 민속학적, 그리고 종교적 혹은 민간신앙적 측면 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심리학적으로는, ‘한국의 전통상·장례 의례절차의 상징성’³⁾이라는 논문에서 풍수가 인간의 내적인 정신세계를 땅과 방위에 투사한 것으로 본 것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풍수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내면, 혹은 무의식적인 측면에 대한 심층 심리학적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의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의 주변환경에 대한, 특히 살아있는 자의 주거환경인 집과 죽은 자의 거처인 무덤에 대한 가치 체계인 풍수,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명당의 무의식적 현상에 대한 것이다. 왜 인간은 자신이 사는 땅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과 이해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이기까지한 측면을 무의식적으로 도입할 수 밖에 없었는가, 또한 풍수의 체계가 그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분석심리학적인 개념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풍수의 상징성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을 많은 방법으로 표현해 왔고, 또 그것은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표현되어 오기도 했다. 다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을 모른 채 행해져 왔다. 자신의 무의식의 내용을 외부의 사물에 투사하여 그것이 곧 외계의 실체라고 여기는 것이다. 외부로 투사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은 형체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생명력을 느끼고 깜깜한 밤이 되면 무서운 고독과 공포,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실체는 어떠한가? 태양은 단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24시간을 주기로 동쪽에서 떠오르며 서쪽으로 진다. 지구의 운동으로 인해 우리는 밤을 맞이하고 아침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아침에 투사되는 생명력이든 밤에 투사되는 공포든 우리가 느끼는 실체는 우리 자신의

3) 이도희(2005) : 한국의 전통상·장례 의례절차의 상징성, 심성연구 20(2) : p142.

심리적 내용이다.

자연 현상에 대한 상징성은 풍수의 체계에서 대단히 많이 관찰되는 것 같다. 풍수는 먼저 자신이 존재하는 주변환경의 자연 현상에 대한 상세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그 관찰을 바탕으로 주변환경에 적응하거나 자신의 생활에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은 그대로 해석하였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신적 내용이 상징이라는 형태로 추가되었을 것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꿈의 해석을 즐겨 다룬다. 그 외에도 신화, 민담, 환상, 정신의학적 증상, 그리고 예술작품 등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의 상징을 다루는 방법으로 하나의 상을 중심으로 그의 연상과 인류의 보편적인 연상을 수집하고 그 상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을 ‘확충’⁴⁾이라고 한다. 융은 이 방법이 원시의 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⁵⁾ 만일 풍수의 체계와 그것으로 인해 생겨왔던 현상들에 심리학적 내용이 있다면 상징의 확충을 통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명당의 심리학적 측면

고대로부터 인간은 주거지나 무덤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영향들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집을 짓거나 무덤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단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신이 현재에 살 곳에 대해 좋은 위치를 찾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조상이 죽어서 그가 좋은 자리에 묻히면 그의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은 풍수의 독특한 사고체계라고 볼 수 있다.

융⁶⁾은 종교에 대해 ‘인간 정신의 특수한 태도’이며 ‘인간이 그의 세계에서 강력

4)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197.

5) Jung CG(1960) : On the Nature of the Psyche,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205.

6) Jung CG(1969) : Psychology and Religion,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8.

하며 위험하거나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경험하며 그들에게 주의 깊은 고려를 하도록 한 것들, 혹은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경건하게 숭배하거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하였다. 좋은 집터와 뒷자리에 대한 우리민족의 이러한 정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좋은 자리, 소위 명당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일종의 종교현상으로 이해될 정도이다.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풍수의 종교적 관념은 좋은 집터를 찾기 위한 노력인 양택풍수에서 보다 뒷자리의 길함과 흉함을 다루는 음택풍수에서 훨씬 더 강해 보인다.⁷⁾ 그러므로 명당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은 음택풍수를 위주로 시도함이 더 적절해 보여 여기서는 주로 음택풍수를 위주로 살펴보겠다.

1. 뻬, 생기 그리고 동기감응

생기가 가득한 곳에 조상의 뻬를 묻으면 조상이 받은 그 생기를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동기감응 혹은 친자감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기가 가득한 곳에 사람이 사는 것도 좋겠지만 묘지에 묻혀있는 죽은 사람의 뻬는 땅과 직접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생기를 직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조상의 뻬와 후손들의 뻬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운으로 인해 조상의 좋은 기운은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뻬는 인체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다. 아담의 갈비뻬로 이브를 만들어 내듯이 많은 민담들과 신화들에서 뻬만 남아있다면 살과 가죽을 붙여 생명을 다시 살려 낼 수 있다.⁸⁾ 또한 뻬는 영속성을 상징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영혼과 정신이 뻬에 깃들여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육신이 썩어 없어지고 남은 뻬를 죽은 자의 영혼으로 여기기 때문⁹⁾에 사람들은 영혼의 집으로써 좋은 뒷자리를 구하려 하는 것이다.

풍수에서 명당을 찾는 이유는 생명력, 즉 생기 때문이다. 특히 음택풍수에서 조상의 뻬를 명당(穴)에 묻음으로써 조상의 뻬를 매개로 하여 자연의 생기를 후손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상의 뻬와 후손이 어떻게 연결이 된

7) Yoon HK(2006) :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Lexington Books, Lanham, p119.

8) 번개의 신Thor가 염소를 잡아먹고 나서 뻬를 모아 재생시키고(E32), 노간주나무의 작은 소년은 누이동생이 그의 뻬를 묻어줌으로써 다시 태어난다(E607.1, 610.1.1) 스티스 톰슨(윤승준, 최광식 공역)(1992) :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서울, p319.

9)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2, 동아출판사, 서울, p361.

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장경(葬經)¹⁰⁾ 기감편(氣感篇)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 遺體受蔭

經曰 氣感而應 鬼福及人

是以銅山西崩 靈鐘東應

木華於春 粟芽於室¹¹⁾

하지만 윤흥기¹²⁾는 '이러한 설명은 생기가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기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기전은 매우 모호하여, 후손들에 의해 생기가 흡수된다는 것은 단지 신비하게 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조상의 뼈(몸)를 명당에 묻었을 때 후손이 생기를 받는다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실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쳐놓더라도, 그 현상은 원인을 중요시하는 인과론적인 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용은 사건들 사이의 '의미상의 일치'라는 개념으로 '동시성 현상'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이다. 두 사건의 일치는 한편으로는 심리적이자 주관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우연의 특징을 상실하는데, 그것은 서로 만나는 개별적인 사건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끝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¹³⁾ 용은 그의 논문에서 많은 예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역경'의 신탁법이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예라고 하였다.¹⁴⁾

10) 장경은 금낭경(錦囊經)으로도 알려져 있는, 풍수의 시조라는 중국 쑤나라 사람 郭璞이 지은 것으로 葬書 또는 郭璞葬書라고도 한다. 일찍이 당의 玄宗이 지리를 잘 아는 泓師를 불러서 산천의 형세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홍은 사사건건 이 장서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현종이 홍에게 그 책을 요구하니 그는 그 책을 바치면서 이 책은 세상에서 귀한 책이고 함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되는 祕寶書라고 말하였다. 이에 임금은 이 책을 錦囊에 넣고 다시 장롱 깊숙이 넣어서 누구에게 보이지 않도록 두었다고 한다. 무라야마 지준(최길성 옮김)(1992) : 조선의 풍수, 민음사, 서울, p260.

11) 인간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는다. 부모가 죽어서 좋은 기운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묻히면, 비록 육체는 썩지만 남은 뼈는 생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자손들은 생기를 받게 된다. 이것은 西蜀에 있는 銅山에서 캔 銅으로 만든 종을 울렸는데 그때 그 동산이 붕괴된 것과 같은 이치이며 봄이 되어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을 때 창고 안에 저장해 둔 곡식에도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곽박(오상익 주해)(1993) : 장경, 동학사, 서울, pp15-19.

12) Yoon HK(2006) : 앞의 책, p69.

13) Jung CG(1960) : On Synchronicity, 앞의 책, p522.

14) Jung CG(1960) : 같은 책, p527.

풍수에서 자연의 생기를 조상의 뼈(몸)을 통해 후손들이 이어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독특한 사고이다.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동시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우리가 명당이라고 여기는 어떠한 조건하에 조상의 몸을 묻으면 그를 통해 자연의 생기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명당을 찾고자 하는 지관 혹은 그 후손의 명당에 대한 정신적 태도가 명당이라는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명당을 바라는 후손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자연이 그에게 명당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될 수 있는 것은 명당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즉, 후손의 정신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명당의 조건이 변화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겨진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종교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안녕만을 위하는 자손들의 이기적인 태도 혹은 많은 풍수 민담들에 등장하듯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혹은 사회적으로 나쁜 짓은 아니더라도 명당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양쪽 모두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현상으로, 그것은 자아팽창¹⁵⁾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행위란 우리의 작은 두뇌로 알기 힘든 비합리적인 세계의 의도를 '주의 깊고 성실하게 관조하는' 렐ligio의 정신적 태도를 견지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의 취할 바 태도인가를 살펴본 뒤에 행위를 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진정한 종교적 태도, 렐ligio의 태도가 명당을 구하기 위한 후손의 진정한 자세라 여겨진다.

2. 산, 바람 그리고 물

풍수지리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땅의 조건은 산줄기, 방향, 그리고 물줄기이다.¹⁷⁾ 문헌, 혹은 풍수사에 따라서 각각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듯 하다. 어쨌든 산줄기나 물줄기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다는 그것들간의 조화를 더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산에 대한 상징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대단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

15) Jung CG(1959) : The Self, CW 9ii, A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23.

16)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p363-364.

17) Yoon HK(2006) : 앞의 책, p70.

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은 세계의 중심이며 축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영원성, 초월성의 상징이다. 그러한 성질 때문에 준비 없이 접근해서는 안되며 아무나 다가갈 수도 없는 곳이다.¹⁸⁾ 또한 죽은 자의 영혼이 산에 머무른다고 믿고 있어 산은 망자의 세계, 명계(冥界)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¹⁹⁾ 그 중에서도 풍수와 연관된 면을 살펴보면, 풍수에서 산은 바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생기를 명당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²⁰⁾ 바람이 가지고 있는, 즉 하늘에 떠돌고 있는 생기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산이 하는 것이다.

바람과 생기는 동질의 다른 형태로서, 그것은 음양의 에너지이다.²¹⁾ 상징적으로 바람은 생기를 가진 ‘호흡’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의 영적인 기운을 가진 영혼을 의미한다.²²⁾ 용은 그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바람은 태양신으로부터 심혼 속으로 흘러 그것을 수태시키는 생산하는 정신(프노이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²³⁾ 바람은 또한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옮겨가는 것, 실체가 없는 것, 잡아두기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²⁴⁾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 바람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 것은 바람을 가라앉힘으로써 그 속에 담긴 생기를 차지하기 위함인 것 같다.

풍수에서 물의 중요성은 장경에서 말하는, 물을 얻는 것이 바람을 가라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²⁵⁾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물에 대한 상징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탄생, 여성 원리, 우주의 자궁, 원질료, 풍요와 재생의 바다, 생명의 샘과 연관된다. 물은 항상 용해하고 부수며, 정화하고, 씻어 내리며 재생한다.²⁶⁾ 그러므로 물은 낡은 생명을 씻겨 내

18) Chevalier J, Gheerbrant A(translated by Buchanan-Brown J)(1996)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p680-685.

19)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권, 동아출판사, 서울, pp398-399.

20) Yoon HK(2006) :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산의 모양, 산줄기의 모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의 책, p71.

21) Yoon HK(2006) : 같은 책, p87.

22) Chevalier J, Gheerbrant A(translated by Buchanan-Brown J)(1996) : 앞의 책, pp 1110-1111.

23) 용 CG(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용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169.

24) Cooper JC(1987) : 앞의 책, p192.

25)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 광박(오상익 주해)(1993) : 앞의 책, pp25-26.

26) Cooper JC(1987) : 같은 책, p188.

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특히, 흐르는 물은 혼욕에 의한 남녀의 성적 유대를 상징하며, 탄생, 재생, 성장을 나타낸다.²⁷⁾ 풍수에서 좋은 물의 방향은 많은 굴곡을 가진 구불구불한 모양이라고 한다.²⁸⁾ 물줄기가 구불구불해 지면 그것은 연약해지고 거리 상으로도 멀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물은 저항을 만나면 양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멀리 돌아가지만, 최후에는 심지어 단단한 바위일지라도 마멸시키는 힘을 가진다. 또 구불구불한 물은 죽음의 경직됨과 대조적인 삶의 유동성을 상징한다.²⁹⁾

모성과의 연관성 때문에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위대한 어머니, 모성여신들은 창조적인 측면과 파괴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 보호자, 따뜻함과 쉼 곳을 주는 자이면서 동시에 분해와 파괴, 살육의 공포스러운 힘의 체현자이다. 즉 모든 생명의 창조자, 육성자이며 또한 생명을 매장하는 모지이다.³⁰⁾ 장경에서 바람을 가라앉히는 것보다 물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이러한 물의 양면적 특성 때문에 물줄기를 다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3. 명당의 상징적 해석

이제 그 명당의 조건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살펴보자. 명당을 결정하는 방법과 이론들은 너무나 많고 복잡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여기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명당의 상징성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명당은 대개 용이라고 불리는 산의 흐름의 끝자락에 꽃처럼 피어나 있는 곳에 위치한 장소이다.³¹⁾ 명당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그것들은 땅의 형태, 물의 흐름, 그리고 방위이다.³²⁾ 여기에 더하여 생기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바람을 잠재우고 물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야 하고 물이 그 앞으로 흘러 나가야 한다. 이들의 조건을 만족시키

27) 김열규(1971) :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서울, p218.

28) Yoon HK(2006) : 앞의 책, p90.

29) 노자 도덕경 8장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78장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 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남만성 옮김(1996) : 노자 도덕경, (주)을유문화사, 서울, p34, p210.

30) Cooper JC(1987) : 같은 책, p108.

31) Yoon HK(2006) : 앞의 책, p75.

32) Yoon HK(2006) : 같은 책, p71.

기 위해서는 산 줄기의 모양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의 모양 때문에 이것을 용이라 부른다.³³⁾ 산줄기의 모양새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용일 수도 있겠고 뱀일 수도 있겠다. 다만 용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짐작해 볼 필요는 있다.

용만큼 동양과 서양의 정서가 다른 것도 많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양쪽 모두에서, 용은 대단히 복잡한 정신적 의미를 가진다.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날개 달린 뱀'인 용은 뱀(물질)과 새(정신)가 결합된 형체이다. 원래 생명을 부여하는 바다(뱀)와 생명의 숨결(새), 둘 다의 현현으로 은혜로운 용은, 하늘의 신이자 지상의 그 대리인(결국 황제나 왕)과 동일시 된다. 동양에서 용은 선을 행하는 하늘의 존재이지만 서양에서는 지하에 속하는 파괴적인 악이 되기도 한다.³⁴⁾ 용은 연금술의 유향 혹은 수은처럼, 대극을 중화하는 성질을 가지며,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용인 우로보로스로 그려진, 개발되지 않은 내재된 자연으로 나타난다. 동양에서 용은 여러 가지의 많은 다른 측면들을 동시에 가지지만, 대부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물, 땅,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조차, 하늘의 창조물들을 그 자신 안에 소유한다.³⁵⁾ 동양에서 용은 구름과 비를 만들고 땅과 하늘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믿어져 왔다. 또한 인간에서 용꿈은 사내아이의 잉태나 크게 될 인물의 출생을 예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⁶⁾ 그러므로 풍수에서 땅의 생기를 명당까지 전달하고, 출생을 매개한다는 의미에서 용은 그것 자체가 아직 발현되지 않았고, 미분화되었으며, 잠재성,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여러 가지 생명원소들, 우로보로스, 연금술의 원물질prima materia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용의 끝자락에 위치한 명당의 조건에 맞는 산의 형국을 살펴보면, 양 사방에 산들이 있어야 하며 그것들의 성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 중 동쪽의 것을 청룡(azure dragon), 서쪽의 것을 백호(white tiger), 남쪽의 것을 주작(red bird), 그리고 북쪽의 것을 현무(black turtle)라고 한다. 청룡은 청색, 동쪽, 봄,木の 기운과 관계가 있으며 백호는 백색, 서쪽, 가을, 그리고 금의 기운과 관계가 있다. 주작은 붉은색, 남쪽, 여름, 火의 기운과 관계가 있고 현무는 검은색, 북쪽, 겨울, 그

33) Xu Shanji and Xu Shanshu(Ming dynasty)(1969) : Dili-Renzixuezhì [The Fact that All Humanity Must Know], Hsin-chu, Chulin Shuchu, p5.

34) Cooper JC(1987) : 앞의 책, p55.

35) Chevalier J, Gheerbrant A(translated by Buchanan-Brown J)(1996) : 앞의 책, p307.

36)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p487-488.

리고 水의 기운과 관계가 있다. 이 네 가지들은 동-서-남-북, 봄-여름-가을-겨울, 용-호-작-무, 그리고 청-백-주-현의 네 쌍들로 이루어진다. 이 네 쌍들의 가운데에 穴(穴)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중앙-황-땅-인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네 방향, 네 동물, 네 계절, 그리고 네 색깔의 네 가지 요소들이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것이다.

4는 전체성의 판단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수³⁷⁾로서, 세상에서 최초로 인식된 질서³⁸⁾의 의미를 가진다. 폰 프란츠는 전체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반복적인 시도는 사차구조(quaternary structure)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원형적 인간정신구조의 경향과 일치한다고 하였다.³⁹⁾ 그외에도 4의 원리는 수많은 곳에서 전체성을 상징하여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합친, 정신의 전체성은 사위의 형태로 나타난다'⁴⁰⁾고 하였다. 그러므로 명당에서의 네 가지 4요소들은 각각이 전체성을 상징하며 각각의 4요소가 네 개 모여 더 큰 전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위에 둘러싸인 명당은 대개 원의 모양을 가진다. 원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신성한 것이다. 이것은 전체성, 완전성, 동시성, 원초적인 완전함을 뜻한다.⁴¹⁾ 명당은 사위와 원이 합쳐진 4각의 원(circulus quadrates)⁴²⁾으로서, 전형적인 만다라의 형태이다. 이러한 만다라의 형태는 자연 현상에서 무수히 많이 만날 수 있다. 또한, 티벳 불교를 위시하여 기독교 등 많은 종교, 신화, 그리고 예술 작품 등에서 만다라의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의 꿈 혹은 환상 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서 더욱 더 그 정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융은 그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인간정신의 핵원자의 상징적 표현이다"⁴³⁾라고 하였다.

37) Jung CG(1953) : Introduction to the religious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Alchemy,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26.

38) 프란츠 칼 엔드레스, 안네마리 쉘멜(오석균 옮김)(1996)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 미디어, 서울, p93.

39) von Franz ML(1974) : Number and Time, (Translated by Andrea Dyke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p115.

40) Jung CG(1963) : III. The personification of the Opposites,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203.

41) Cooper JC(1987) : 앞의 책, p36.

42) Jung CG(1958) : Psychology and Religion, 앞의 책, p64.

43) von Franz, ML(1968) :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Man and His Symbols(Ed. by Jung CG), A Laurel Book, New York, p230.

원은 전체정신의 상징이며, 사위로 구성된 사각형은 세속의 성질, 육체와 현실의 상징⁴⁴⁾이자 전체정신이 의식에서 인식되는 것⁴⁵⁾을 나타낸다. 용은 그의 논문 '심리학과 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위의 상징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상징의 역사를 알려주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것을 흥미롭게도 그들 자신이라고 해석한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들 자신,⁴⁶⁾ 또는 그보다도 그들 자신 속의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깊이 그들 자신에 속하는 어떤 것, 어떤 종류의 창조적 배경, 또는 무의식의 심층에 있는, 생명을 주는 태양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이것은 또한 전체성의 상징이며 자기(Self)의 상징이다.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는 전체로서의 정신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의 중심을 뜻하기도 한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신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의 직관적으로 알아왔다.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인간 내부에 있는 다이몬daimon이라 불렀고 이집트에서 그것은 바-혼Ba-soul의 개념으로 표현되었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개 개인의 타고난 특질Genius로서 숭배하였다.⁴⁸⁾ 종교에서 '신'이라 부르거나 최고의 진리로 삼는 상들은 대개 자기의 원형상들이다.⁴⁹⁾ 동양에서 이것은 '도', '불성', '진여', '일심'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부처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산신령 같은 노현자, 때로는 '어린이'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인격상이 아니더라도 금강석, 황금의 꽃, 연꽃, 둥근 돌, 그리고 장미 같은 상도 흔히 자기원형상으로 표현된다.⁵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중심인 의식적 '자아'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44) Jaffe A(1968) : Symbolism in the Visual Arts, Man and His Symbols(Ed. by Jung CG), A Laurel Book, New York, p285.

45) von Franz ML(1968) : 앞의 책, p234.

46) 용이 분석한 피분석자들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 모두라고 볼 수 있다.

47) Jung CG(1958) : 앞의 책, pp57-58.

48) von Franz ML(1968) : 같은 책 p162.

49) Jung CG(1959) : V. Christ, A Symbol of the Self, 앞의 책, p40.

50) 이부영(1998) : 이러한 설명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형을 이해하는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계적으로 갖다 맞추는 해석은 상징의 생명을 죽이고 체험의 엄숙함과 그 장렬함을 한낱 흥미거리고 전락시키거나 지적 사치로 이용하는 빈 단어의 나열일 뿐이다.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결코 전일성을 실현할 수 없으며 감정이 참여해야 함을 용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앞의 책, pp116-117.

내면의 자기는 무의식 속에 있으면서 정신에 대한 일종의 조절기능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비록 느끼고 인지하기 어렵지만 인간의 정신적 성장 과정-개성화 과정-을 만들어 간다.⁵¹⁾

정신의 전체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인 자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전체정신을 말하는 것이며, 정신의 부분들을 단순히 모아놓기만 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부분들간의 의식된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체성이라 함은 조화와 균형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아와 그림자의, 페르조나와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의,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와 균형이 전제되는 전체성이다.

명당은 이처럼 인간 정신의 전체성-자기-을 상징하며 그것이 땅에 투사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땅에서 명당을 찾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외계로 투사한 전체성을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내재화를 통해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어떤 내용들, 경향들을 조화와 균형을 갖춘 땅에 투사하여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의 조화롭고 새로운 전체성을 이룩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도, 개성화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4. 명당의 주인

한국 풍수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는 명당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관념이다. 길지가 주로 착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지고, 나쁜 사람은 명당을 차지해서 묘를 쓰고 집을 짓고 살아도 발복이 안된다, 혹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충효 사상, 자비심 등 유교와 불교에 바탕을 둔 윤리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몇몇 풍수 민담이나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술수나 잔꾀도 서슴지 않는 다소 비윤리적인 면도 등장한다.⁵²⁾ 그것은 명당을 둘러싼 인간의 과도한 비도덕적 욕심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51) von Franz ML(1968) : 같은 책, p161.

52) 윤홍기(2001) :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제26권 4호 pp343-355 참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도 자아의 어두운 부분, 즉 무의식의 그림자가 자아를 압도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민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명당을 차지하는 사람의 윤리적 태도는 그의 의식의 태도, 즉 무의식을 대면하는 자아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의 윤리적 가치는 집단의식적인 측면, 관습적인 것이다. 정신의 문제에서 윤리적, 도덕적 태도에 대해 용은 ‘윤리적 성질이란 그것이 충분히 반성되었을 때를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의식적인 대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오직 두 개의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 사이에서 근본적인 회의를 겪음으로써 가능하다.’⁵³⁾라고 하였다. 안이하게 다른 하나를 집단사회의 규범으로 억압해 버리지 않고 깊이 이 갈등을 겪고 지나갈 때, 이때 생기는 결단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개성적인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사회도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용에 있어서 진정한 양심적, 윤리적 결단이란 그 사람이 부분으로서가 아닌 전체가 되는,⁵⁴⁾ 전체로서의 자기실현 추구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명당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는 것은 용이 말하는 ‘자기’에 접근하려는 ‘자아’의 윤리적 태도, 즉 자기실현을 위한 진정한 결단의 준비, 즉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풍수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매우 독특하게 자리잡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풍수의 체계는 대단히 복잡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최창조는 그의 책에서 풍수적 이상의 땅, 명당, 길지에 대해 “온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결함이 없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주위환경, 각이 지지 않는 방위와 유장한 산의 흐름, 찌를듯 달려들지 않는 물길, 그러나 변화무쌍하여 결코 단조롭지 않는 산수의 배열, 이러한 조화를 이룬 자연에 적덕(積德)한 사람들의 영원한 거소(居所)”⁵⁵⁾라고 하였다. 아주 먼 과거의 풍수는 윤홍기⁵⁶⁾의 이론대로, 산 사람이 잘 살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것 같다. 사람들이 살면서, 특히 현대적인 토목기술과 건축기술이 발달하기

53) Jung CG(1970) : A Psychological View of Conscience, CW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p454.

54) 이부영(1998) : 앞의 책, p337.

55) 최창조(1984) : 앞의 책, p337.

56) Yoon HK(2006) : 앞의 책, p21.

전에는 자연의 지리적 조건에 맞추어서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에 적당한 조건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찾은 땅이 명당이었을 것이다.⁵⁷⁾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다. 명당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보통 사람도 어떠한 장소에 가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록 그곳이 집을 짓고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다. 물론 모든 개인이 동일한 조건의 땅에서 같은 느낌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 땅의 조건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아마도 의식 조건의 개인차 때문일 것이다. 그의 정신의 모자라고 넘치는 부분을 명당이라는 상징적인 땅의 조건이 보충해 주고 수용해서 그의 전체 정신을 균형잡고, 조절하고, 보충해 주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명당의 효과는 무의식의 보상작용⁵⁸⁾을 통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전체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명당을 찾는다는 것은, 그 과정만으로 의식의 방향성, 일방성⁵⁹⁾으로 인해 자기라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정신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명당에 자리를 잡고 살거나, 혹은 명당에 조상을 묻음으로써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의식의 욕심으로, 융심리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명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체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도, 즉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명당은 우리 마음속의 최고의 가치인 조화와 균형, 완전성 그리고 전일성인 자기의 상이 땅에 투사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정신의 전체성을 추구하는 과정과 동일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의식의 태도가 필요하다. 준비된 자에게만 명당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 풍수지리, 그 중에서도 명당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미

57) 이러한 현상은 죽은 자를 위한 좋은 터를 구한다는 점에서 음택풍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8) Jung CG(1971) : XI. Definitions, CW 6 Psychological Type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p418-420.

59) Jung CG(1971) : 의식의 활동은 그 성격상 선택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방향과 맞지 않은 것은 억압되어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무의식으로 들어간 그 성향들은 의식의 일방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반대의 힘이 생기게 된다. 앞의 책, pp419.

치는 영향을 분석심리학적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앞에서 말한 그러한 영향들이 풍수사, 혹은 풍수를 믿고 명당을 찾는 사람들의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향후의 연구는 그러한 것들을 풍수사 개인의 체험이나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민담과 설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

나가는 말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가짐은 당연하다. 우리는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지만 수많은 상징 속에 살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그들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의식의 자아는, 그것들의 작용을 잘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시키는, 즉 의식화에 성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자신의 주체, 즉 우리 내면에 소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명당과 같은 자기의 상징은 인생의 장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특히, 인생의 전환기 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⁶⁰⁾ 물론 개성화 과정이라는 자신의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말이다.

개성화, 혹은 자기실현이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짧게나마 이야기 한다면, 우리 무의식 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식에 끌어올려 의식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용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⁶¹⁾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60) 자기와 같은 무의식의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가까이 있는 사소한 말 실수, 밤에 꾸는 꿈, 개인의 인간관계, 환상 등에서 볼 수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정신병리, 예술작품, 종교, 자연의 현상 심지어는 사회 현상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61) 야훼(1989) :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이부영 역, 집문당, 서울, p17.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인격 또한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전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 속의 내용을 만나서 발견하고 의식에 끌어올려 의식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으며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살고 있다. 특히 학벌, 외모, 혹은 경제적 부 등의 외향적인 현상들과 사건들에 둘러싸여, 그것들에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신 내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전체정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자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무의식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 그 정도는 매우 다양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시해 버릴수 있는 사소한 것일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아가 붕괴되어버릴 정도로 강력할 수도 있다.

정신의 통일성, 전일성, 전체정신의 중심핵을 상징하는 자기의 원형상은 분명 이에 해당하는 강력한 감정반응을 수반하는 상이 될 것이다.⁶²⁾ 이러한 상징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 누미노제를 가진 어떤 존재와 접촉할 때에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개인의 심리학으로 소급한다면 너무나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가치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자아가 붕괴할 정도로 거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 이러한 것들은 주관적인 가치를 동반하지 않아서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상징 그 자체로는 대단히 중요한 집단표상이 주관적 감정의 강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만 하위의 속성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⁶³⁾⁶⁴⁾

62)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p61.

63) 이부영(2002) : 앞의 책, p66.

64) 예를 들면 신의 상이 이에 속하는 동물의 형태로 나타난다거나 여신이 검은 고양이로 나타나거나 神格의 성질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하찮은 돌 lapis exilis'로 나타나는 경우다. 혹은 어떤 무의식의 원초적 이념에 상응하는 감정적 강조가 의식에 없으면 그것의 원형적 맥락을 번역해야 하는 작업이 시인이나 예언자, 노현자 등에 의해 이루어 진다. Jung CG(1959) : V. Christ, a Symbol of the Self, 앞의 책, p52-54, 정신분석상황에서 정신분석가도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

현대 사회에서 풍수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토속 신앙의 형태로 전락해 버린 점이 없지 않다. 또한 풍수의 정신적인 측면은 배제된 채 실내의 조정의 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는 매우 하찮고 가치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투자할 만큼 종교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의 심리학적 가치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가치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찮은 것이라 치부하고 무시하고 마느냐 하는 것은 의식적 자아의 몫이다. 이 글을 통해 흡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이 눈뜨다면 그것은 이 연구의 성과이며 더 멀리는 무의식의 창조성을 언급한 용의 성과이다.

참고문헌

- 곽박(오상익 주해)(1993) : 장경, 동학사, 서울.
- 김열규(1971) :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서울.
- 남만성 율김(1996) : 노자 도덕경, (주)을유문화사, 서울.
- 무라야마 지춘(최길성 율김)(1992) : 조선의 풍수, 민음사, 서울.
- 스티스 톰슨(윤승준, 최광식 공역)(1992) :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서울.
- 아니엘라 야훼(이부영 역)(1989) :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 윤흥기(2001) :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 343-355.
- 용, CG(이부영 율김)(1993) :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서울.
- 이도희(2005) : 한국의 전통상 · 장례 의례절차의 상징성, 심성연구 20(2) : 65-156.
-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_____ (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최창조(1984) :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서울.
- 프란츠 칼 엔드레스, 안네마리 쉼멜(오석균 율김)(1996) :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 미디어,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권, 동아출판사, 서울.
- _____ (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권, 동아출판사, 서울.
-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lated by Buchanan-Brown J)**(1996)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 Cooper JC**(1987)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London.
- Jung CG**(1953)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58)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Routledge & Keg-

- an Paul Ltd., London.
- _____ (1959) : CW 9ii, A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0)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 Ka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3)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4) : Man and His Symbols, A Laurel Book, New York.
- _____ (1970) : CW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 _____ (1971) : CW 6, Psychological Types, Routledge & Kagan Paul Ltd., London.
- von Franz ML**(1974) : Number and Time (Translated by Andrea Dyke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 Xu, Shanji and Xu Shanshu**(1969) : Dili-Renzixuezhishi [The Fact that All Humanity Must Know], Hsin-chu, Chulin Shuchu.
- Yoon HK**(2006) :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Lexington Books, Lanham.

Shim-Sŏng Yŏn-Gu 2011, 26 : 1

〈ABSTRACT〉

**Psychological Aspects of “Myeong-Dang”
(Bright Yard, Auspicious Site) According to Pungsu**

Cheol Joong Kang *

Pungsu is an ancient logic that systemizes geography based on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Principle. It is defined as the unique and highly systemized ancient Eastern art of selecting auspicious sites and arranging harmonious structures such as graves, houses, and cities on them by evaluating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cosmological directions.

Pungsu helps allegedly one improve life by receiving vital energy(Shengqi, 生氣)-energy flow that flows under the ground. It is traditional belief that the living lead their lives on the ground, indirectly receiving the energy coming out of the ground, whereas the dead are buried under the ground, allowing them to directly absorb energy from the ground, which makes Shengqi the dead receive bigger and more obvious than that the living receive.

This energy absorbed by the dead from the ground was believed to be passed on to their descendants. This phenomenon is called “Induction of vital energy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People searched for the sites which were believed to contain rich and positive vital energy flow. They also tried to bury their ancestors under such sites hoping to receive the Shengqi coming from underground which they believed would help them thrive and prosper.

The efforts to locate the sites which have the most vital energy, auspicious sites or “Bright Yard(明堂)”, are easily observed in Asia including China and Korea. The ultimate goal of searching for auspicious sites lies in human(whether alive or dead) receiving vital energy from the nature to enjoy happy lives. In choosing a place to live or to bury their dead ancestors, people tried to understand the energy flow of the site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with mountain,

water, and direction.

If we take a closer look into the methods of finding auspicious sites, we can see that people have tried to see the outer conditions of lands, mountains and waters within the perfect harmony if possible. Auspicious site or Bright Yard is the site with those elements in perfect order and harmony, that is, it is the place which derives the most vital energy from the best order and harmony of nature. As this shows, an auspicious site symbolizes totality-the Self, and it seems to be projected to the land. It is believed to be an attempt that the reason why we try to find auspicious sites to internalize the totality that we projected to the outer world. Therefore, this auspicious site is what our foremost values, symbol of the Self, such as harmony, equilibrium, perfection, and uniqueness are reflected to the land.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such a site, we try to gain totality of psyche.

KEY WORDS : Pungsu · Auspicious site · Self.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